

# 숨은 광장 :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의 거품, 소음, 응성거림

발제\_김현주  
A.C.클리나멘, 비비보관소



김현주  
Hyunjoo Kim

예술프로젝트 전시 및 교육을 기획하는 문화예술기획자이자 미술작가다. 미술작가 조광희와 함께 비비보관소와 예술공간 송산반점을 운영한다. 예술과 장소, 예술가와 지역민들을 연결하여 도시화, 자본화 되어가는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 보다 인간다운 놀이, 삶을 사색하는 '예술하는 영토'로 확장하려 애쓴다. 미군기지가 지역의 땅과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예술작품을 통한 인식 전환 및 항구적 미군기지화, 항구적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예술적 거품을 궁리한다.

<기억 향해> 오디오 투어 기반 이동식 퍼포먼스\_빼빼 마을 내 폐쇄된 클럽 내부 공간\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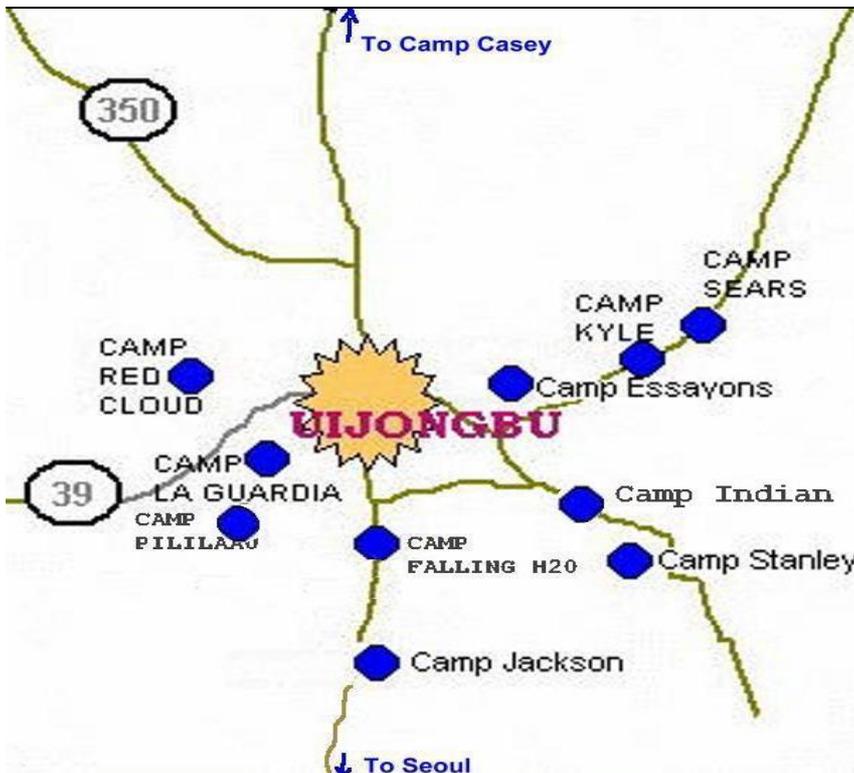




'여기가 뽕밭.'

마을에서 대보름 되면  
뽕대를 모아 내 나이만큼 엮어  
그리고 달님한테 소원 비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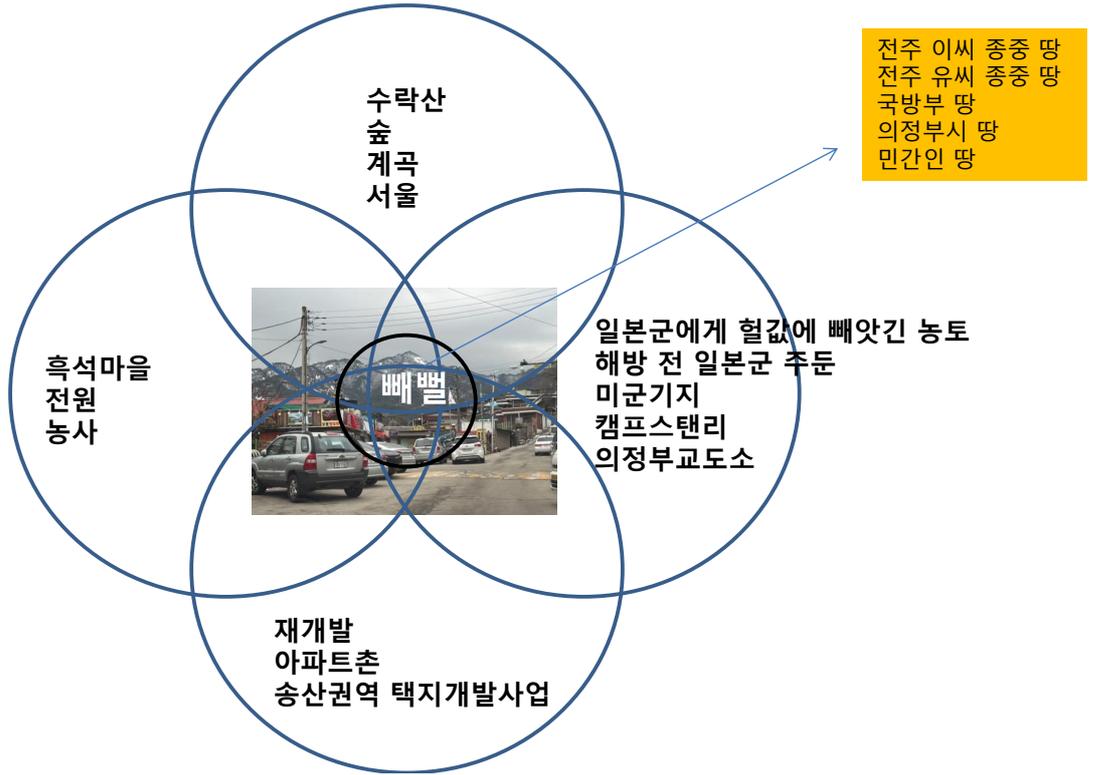
'타닥타닥 씨앗이 들어 있어서  
다른 풀보다 태우기 시작하면  
태우는 소리가 아주 경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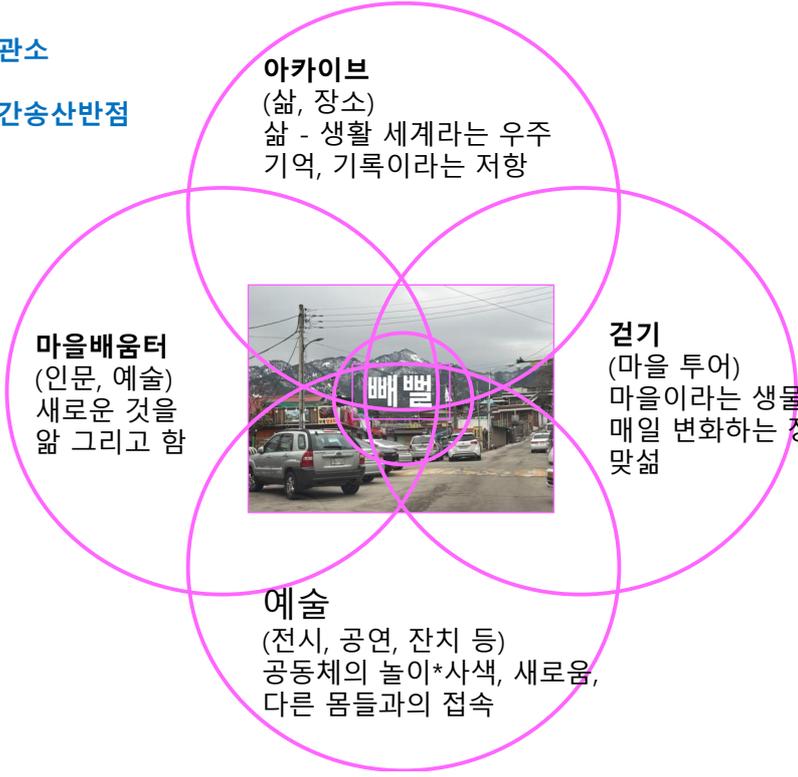
미국은 전 세계 약 70개국에 걸쳐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보유.  
2022년 기준 일본 120개, 독일 119개, 한국인 73개 순으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일본에 있으며, 이 중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전체 일본 미군기지의 75%를 차지.

@Hyunjoo Kim x Kwanghee Cho

송산로  
 999번길  
 .  
 1번 버스  
 .  
 999+1  
 .  
 뻬뻬



배배 보관소  
X  
예술공간송산반점



예술을 통한  
이름, 사건, 연대  
응성거림, 소문, 변화

같은 다른 것  
혹은  
다른 같은 것  
만을 추구하는  
세계의 질서  
-라는  
경계, 울타리 넘기며  
나와 세계를 잇기,  
질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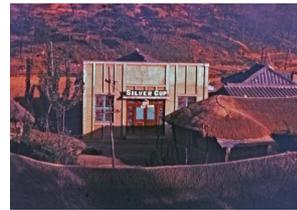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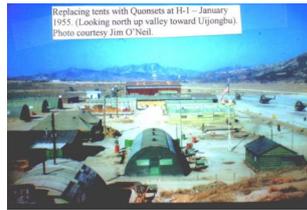
기억공동체, 서사공동체로서의 배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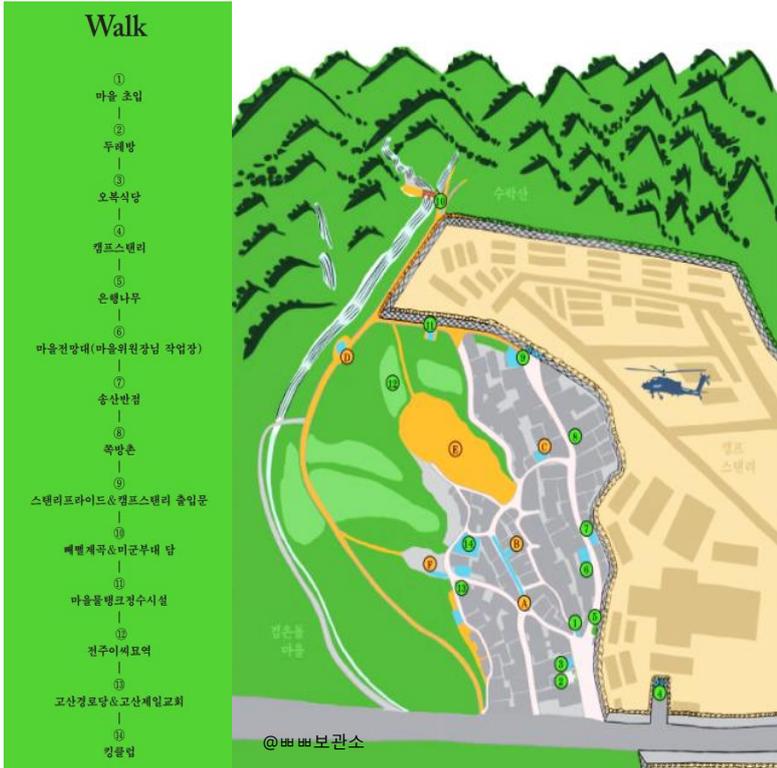


배배 프로젝트 On going Ppaeppeori Project \_ 포토콜라주, 잉크젯 프린트 65x160\_2021\_김현주



**Camp Stanley Tent City 1954**





걷기  
\_숨은 광장으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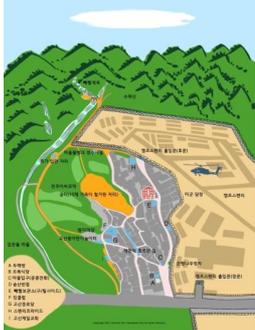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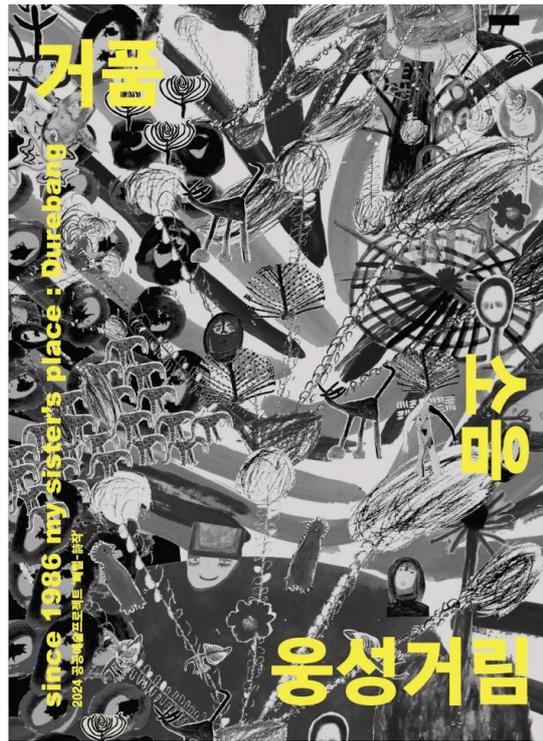
2019\_뽀뽀주름\_'Walk'@뽀뽀보관소

Ppaeppe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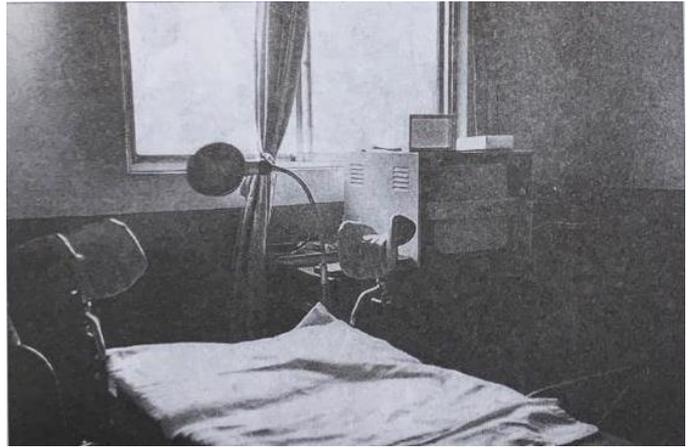
.....Kwon Heung-gyun  
Kwon Jaeng-ah  
Lee Seung-yeon  
Yi Soong-ah  
Park Kwang-gil  
Yi Eunmi  
Jang Do-yeung  
Jong Min-soo

.....Choi Hee-soon  
Hwang Jae-young  
Jang Seok-jun  
Yoo Young-min  
Yoon Seon-min  
Kim Man-yeon  
Kim Ji-yeon

낭독의 방 -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_2020-2021



두레방은 1986년 기지촌 여성의 자활을 돕는 단체로 의정부 CRC 에 인접하여 개소한 후, 1987년 빼빼 마을로 이주. 초기에는 초기 마을 안쪽에 위치한 자치포주가 운영하던 민가건물에서 상담소와 기지촌 아이들을 돌보는 놀이방, 공부방을 운영해 오다가 1997년대 이후 고산성병진료소 공간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진료소와 공존. 2000년대 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건물 전체를 의정부시로부터 임대하여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



구. 의정부시고산성병진료소 \_ 현재 두레방이 위치해 있는 옛 진료소의 모습  
출처\_<동맹 속의 섹스> \_ 캐서린 H.S. 문

...진 떨어지던 우리가 2층에서 일했다. 두층짜리. 거기서 중  
 ...은 애들이 이불을 뜯어 가지고 2층 옥상에 올라가서 국기  
 ...양기에 이불깎데기를 묶고 타고 내려가 도망을 간 거야. 한 시  
 ...잠만 숙직하는 사람이 있어. 숙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잠이  
 ...들었던가 봐. 그다음부터는 송산동 여자들 검진을 안 해준다고  
 ...간리를 쳐 갔고 그때부터 이리로 오게 된 거야. 월요일 하고  
 ...요일. 일주일에 두 번 검진을 하다가. 베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쿵알 먹은애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 다  
 ...부터는 막 송산 여자들 검진 안해 준다고. 이 동네가 비디 빌  
 ...이라고. 병 있는 여자들. 내가 1968년에 베벨에 왔는데 그 전  
 ...이 있었어. 이 건물이. 여기가 2층이었어. 여기 올라가는 계단  
 ...이 있었어. 계단 올라가면 2층에 어떤 할머니가 커다란 강아지  
 ...를 데리고 살았었어. 1층에 방도 하나 있었고. 여기가 원래 양  
 ...장점이야. 대지 의상실이라고. 대지가 아니라 돼지. 돼지 의상  
 ...실이야. 꿀꿀돼지. 여기 간판이 있었지. 나중에 저기 미장원쪽  
 ...으로 옮겨졌지. 돼지 의상실이라고. 여기서 떨어지면 도립병원  
 ...층으로 가고 그랬지. 나도 몇 번 갔었지. 의사들이 와서 검진  
 ...이. 여기서 보는 곳이고. 여기서 검진하는 애 올라가는 곳



나물 할머니, 신기루, 아카이브  
2-ch 비디오, 45min\_가변설지\_2024



두레방 3대 원장님이신 유영님 선생님을 시작으로  
두레방 활동가 인터뷰 진행\_2024

**Since 1986 my sister's place : 두레방**

21년간의 두레방 여정:  
'인생이 놓아버리는 거잖아. 진정성이 없으면.'

인터뷰이 | 유영님 (두레방 전 원장님)



전 두레방이 위치한 용산역 인근 두레방 개관\_2008.07

두레방 - 섬, 터  
인터뷰이 | 박수미 (두레방 활동가)



두레방도 있고 와서 활동하는 여자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제 두레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박수미\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나와 두레방 그리고 기지촌 여성  
인터뷰이 | 페페 (두레방 활동가)



인간에게도, 두레방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두레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2022년 10월부터,  
페페\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나와 두레방

두레방은 어떤 곳인가,  
나는 이곳에서 무얼 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만난 기지촌 여성들의 삶  
인터뷰이 | 장보윤 (두레방 활동가)



많은 여성은 처음에는 남장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기심과 함께 우리도 그런 생각의 경유  
장보윤\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두레방에서의 3개월  
인터뷰이 | 최선영 (두레방 활동가)



활동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의 통로로서 지금 행선지 계속 있습니다.  
최선영\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아카이브 II.  
meet my sister's place  
언니들의 그림

| 배 배 보관소

사진촬영 | 조광희  
이미지 편집 & 텍스트 | 김현주  
아카이브 기간 | 2024.03.08 ~ 04.29  
촬영 장소 | 두레방 회의실

아카이브 II. <meet my sister's place. 언니들의 그림>은 두레방에 남겨진 여성들의 그림들을 만나고 펼치는 일이다. 남겨진 원화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너도 및 작자 등을 파악 후 데이터화 하였다. 1998-2012년까지 사이에 그려진 약 1,000여점의 그림들을 연대별로 정리하였으며, 아카이브 그림 중 일부를 <거품, 소음, 음성거림> 프로젝트展에 전시하였다.



박인순\_까마귀 까지 부엉이가 사는 나무\_2002.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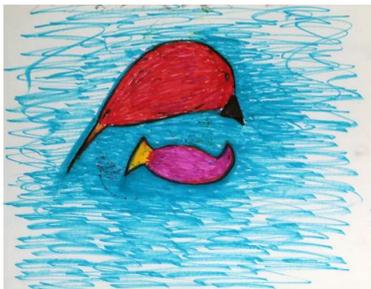


작자미상\_명성이02\_2003.10.01

96



김태정, 박인순\_2011.03.22  
 기지촌여성활동가 김태정님이 당시 박인순님과 미술치료 워크숍에 참여하여 그린 그림



김인순\_엄마 물고기와 아기 물고기\_2011.01.22



박인순\_새가 가진 독나비\_2013.06.12



박인순\_제목미상\_년도미상



박인순\_배고픈 임신한 새\_2013.06.12



박인순\_년도미상



박인순\_년도미상



<언니들의 그림>\_Since 1986 my sister's place : Durebang '거품 소음 응성거림' 프로젝트 전시 풍경\_ 예술공간 송산반점 2024  
1998-2012년까지 사이에 그려진 1,000여점의 그림들을 년대별 정리

오르남의퍼포먼스

**'En el Centro  
중심에서' : 모든 거품,  
모든 응성거림들의  
댄스**

장소 | 두레방  
피포머 | 솔몬나  
플래쉬 업 퍼포머 | 김기영, 조주일, 조아영,  
박도연, 박연경, 정새롬,  
남가영, 아침, 홍윤경, 오지후  
음향 | 임창재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전통춤이다. 발을 구르고 손뼉을 부딪혀 소리의 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집시들의 출이기도 한 플라멩코는 수시로 변하는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센 그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몸의 울림을 통해 풀어나간다.



놀이를 통한  
연대의 지속과 변곡점  
만들기  
/  
전환과 확산의 몸짓

'En el Centro중심에서'\_관객참여 퍼포먼스\_솔몬나 2024

오르남퍼포먼스

### '솟은 구멍, 숨은 거품' : 보글보글 목소리와 움직임들

장소 | 두레방  
퍼포머 | 조제인  
협력 퍼포머 | 김솔  
음향 | 임장재



두 발을 하늘로 올려 거꾸로 솟아 보려 애쓰는 구멍이 있다. 과연 구멍의 이야기가 빠른 계곡에 숨은 거품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보글보글 새어 나와 숨을 보태줄 거품이 나타나길 기다려 본다.



'솟은 구멍, 숨은 거품' 퍼포먼스\_조제인 2024

놀이를 통한  
연대의 지속과  
변곡점 만들기  
/  
전환과 확산의  
몸짓



오르남퍼포먼스

### '뒤를 돌아라, 땅을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 : 경계 넘기 퍼포먼스

장소 | 두레방  
출몰리기 | 김한주, 김태정  
놀이감 선물 | 고무신 조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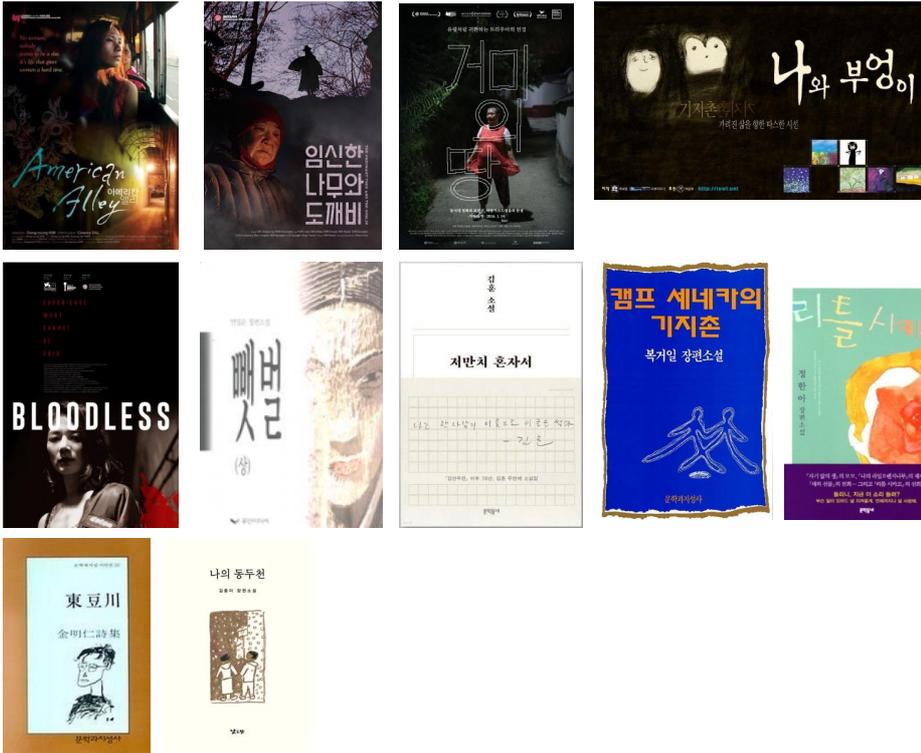
선을 넘자, 선을 넘어 뒤를 돌아보자. 걸지만 말고 땅도 짚어보자.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르며 모르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보자. 그다음 '선을 넘어 잘 가거라!'



뒤를 돌아라, 땅을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_관객참여 놀이\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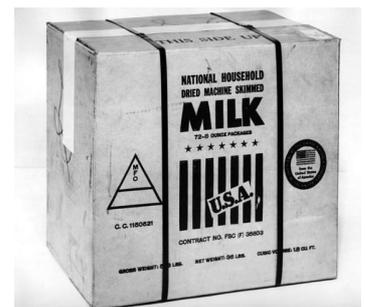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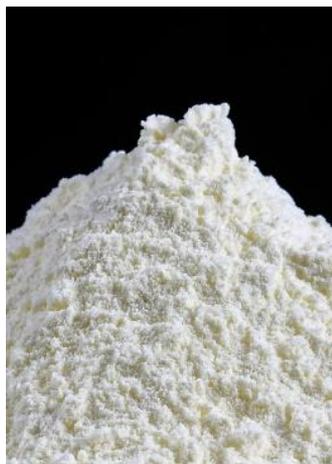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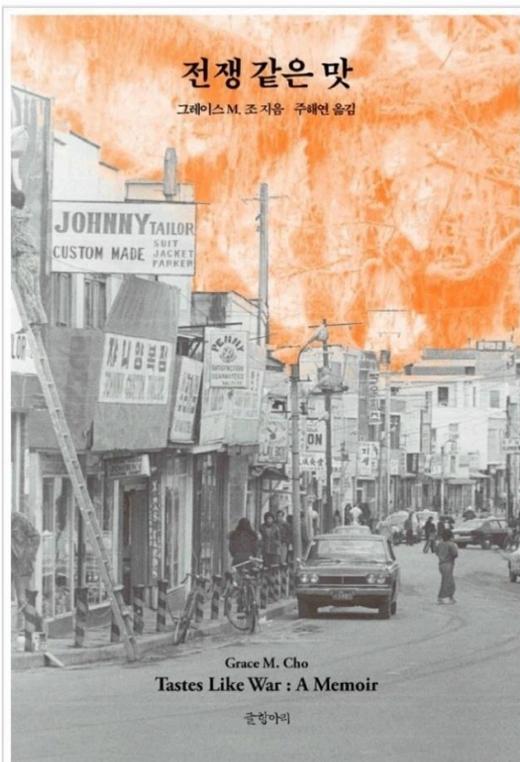


놀이를 통한  
연대의 지속과  
변곡점 만들기  
/  
전환과 확산의  
몸짓



동두천의 마지막 나룻배 이야기  
 '아리랑 다리' \_1964  
 나와 부엉이\_ 박경태 2003  
 있다 There is \_ 박경태 2006  
 아메리칸 엘리\_김동령 2008  
 거미의 땅\_ 김동령, 박경태 2012  
 동두천 Bloodless 김진아 2017  
 신한 나무와 도깨비\_김동령, 박경태 2019  
 소요산 tearless\_김진아 2021  
 아메리칸 타운\_김진아 2023

뱃별\_안일순  
 저만치 혼자서\_김훈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_북거일  
 동두천(시집)\_김명인  
 동두천 아리랑(시집)\_손순자  
 나의 동두천\_김종미  
 리틀시카고 장한아





어르신들의 소비 놀이터 - 소요산이 전세대의 문화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사키마 미술관 \_ 2024



오키나와 전통식 귀갑형묘\_ 2024

‘사키마 미술관 - 전쟁의 참상을 사색하는 곳’

사키마 미술관은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기지과 인접해 있다. 1994년 11월에 개관한 이곳은 미술관 관장인 사키마 미치오에 의해 만들어졌다. 본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었으나 미군기지화 되었었고 이후 토지 일부를 반환 받게 된 땅 위에 미술관을 짓게 되기까지의 서사는 많은 것들을 사색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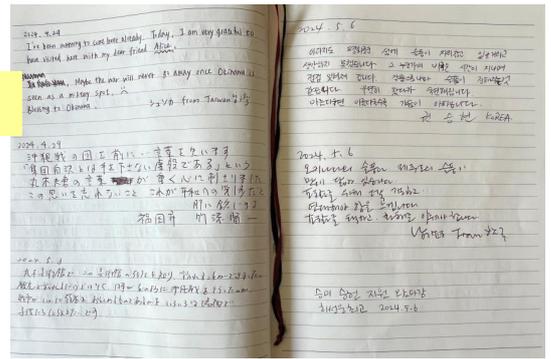
사적 소유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미군기지 바로 곁에 미술관을 만들어 잊혀진 전쟁을 현재화하여 감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일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해내고 있는 것 등 미술관에 담긴 가치들이 고유한 장소성으로 각인되면서 ‘알’이 아닌 ‘함’으로써 지켜내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곱씹게 된다.



사키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키나와전>



**사키마 미술관 풍경 2024**



이들이 지켜내고 싶은 평화는 기지화된 땅의 현실에 무력해지거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억하며 대응하는 것. 사키마 미술관의 평화에 대한 바람과 예술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계가 삼엄한 땅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경계 없는 예술공간이 지어진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다. 미술관은 예술작품을 통해 과거 전쟁의 극악무도함과 비통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땅 오키나와와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사키마미술관 건축물**

오키나와 전투가 끝난 6월 23일을 6개, 23개의 계단으로 조형화 옥상 위로 올라가면 후텐마 미군기지가 내려다보임

